

가축 면역력 떨어지는 환절기, 축산농장 환경관리 요령

- 온도와 환경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로 가축 면역력 저하
- 축종별 축사환경 관리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가축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환절기를 맞아 가축사양 및 축사 환경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 아침저녁으로 찬 공기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낮에는 충분히 환기한다. 낮에는 소가 일광욕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운동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린다. 우사 내 깔짚을 자주 교체해 축사 바닥을 건조하게 유지해 준다. 이른 봄에 태어난 송아지는 저온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보온에 신경 쓰고, 설사병과 호흡기질병 예방 백신을 접종해 예방에 힘쓴다.

△돼지= 돼지는 온도에 민감해 성장 단계별로 적정 사육 온도가 16도(℃)에서 높게는 35도까지 달라 돈사 환경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임신 중인 돼지는 16도~21도, 젓 먹이는 어미돼지는 18~21도, 출생 직후 새끼 돼지는 30~35도, 젓 떼 돼지는 22~29도가 적절하다. 육성 초기에는 20~27도가 알맞고, 육성 후기 18~22도, 비육단계 돼지는 16~21도가 적합하다.

또한, 환기가 잘 안돼 습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낮에는 충분히 환기하고 밤에는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관리해 호흡기 질병을 예방한다. 구제역 백신접종을 준수하고 차단방역도 철저히 한다.

△계(닭)= 계사 내 방한 설비를 서서히 제거해 낮과 밤의 온도 차가 10도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어린 병아리는 체온조절 능력이 부족하므로 초기 1주 동안은 32~34도를 유지하고 1주일 간격으로 약 3도씩 온도를 낮춰 20도 전후가 되면 난방을 멈춰도 좋다.

또한, 겨울철 최소로 유지하던 환기량을 조금씩 늘린다. 습도가 과하면 계사 바닥 내 계분과 혼합해 암모니아 가스나 곰팡이를 발생시켜 질병 발생 위험이 커진다. 반대로 습도가 낮으면 탈수로 인한 폐사 또는 성장 지연, 호흡기 질병을 유발하므로 습도기를 배치해 관리한다.

아울러 겨울 동안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농장 주위 산이나 언덕에서 토사가 흘러내릴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점검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축사 내외부에 균열이 생기거나 파손된 곳이 있는지 점검하고, 축사 주변 배수로를 정비해 물 빠짐을 원활하게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기온변화와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가축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질병 발생 위험도 큰 상황이므로 외부인 출입제한 등 철저한 차단방역도 실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환절기 가축 사양관리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책임자	과 장	정진영 (063-238-7200)
		담당자	지도사	김정현 (063-238-7203)
				

붙임**환절기 가축 사양관리**

□ 돼지 성장단계별 적정 사육 온도 및 습도

성장단계	온도, ℃	습도, %
임신통, 웅돈	16~21	50~60
포유모돈	18~21	50~60
포유자돈	30~35	60~70
이유자돈	22~29	60~70
육성초기	20~27	60~70
육성후기	18~22	50~60
비육돈	16~21	40~60

‘산자수(MSY) 27두 달성’을 위한 사양관리 지침서(2018, 국립축산과학원)

□ 육계의 적정 육추 온도 및 습도 관리

주령	온도, ℃	습도, %
0~1일령	34	70
2~3일령	32	70
4~6일령	30~32	70
2	28~29	65
3	26~27	60
4	24~25	60
5	22~23	60
6	21~22	60
7	18~21	60

한국가금사양표준, 2022

□ 참고사진



<돈사 청결관리>



<계사 보온관리>



<우사 소독관리>



<청결한 축사관리 및 지붕개방 환기>



<건조한 축사 바닥관리>



<깨끗한 급수통 관리>